

| 목 차 |



인사말	박소희 이사장	2
작은도서관 역사찾기2		
	다큐멘터리 ‘작은도서관 함께읽을래?’	4
	작은도서관 아카이빙 전시 ‘작은도서관, 잇다’	54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60
	2018 작은도서관 ‘스스로’ 아카데미 선정사업 소개	67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219
	2018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 사업 선정 도서관 소개	222
협회소개		332

‘작다’ 그러나 ‘크다’

박 소 희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이사장



우리는 작은도서관입니다. 공공도서관의 틈새에서 민들레처럼 지역 곳곳에 피어났습니다.

김장성의 그림책 「민들레는 민들레」처럼 각자의 모습으로 하나의 이름이지만 참으로 다양한 개성을 뽐내고 있는 우리는 작은도서관입니다.

2019년 1월, 서울도서관 전시기획실에서 ‘작은도서관, 잇다’라는 전시를 운영했습니다. 전시 제목을 정하는 자리에서 무엇이 좋을까 얘기하며 칠판에 가득 작은도서관과 관련된 단어들을 적어보았습니다. 사람, 공동체, 사랑방, 마을, 책, 이웃, 세대, 다양성 등의 단어들이 나왔고 생각해 보니 그간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이 한 일들은 책과 사람을, 사람과 사람을, 그리고 세대와 세대를, 마을과 마을을 이어나간 활동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잇다’라는 말을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아름답다 기금’은 도서문화재단 씨앗의 출연기금입니다. 작은도서관이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일들을 도모하는데 사용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고마운 제안에 눈물이 났습니다. 특히 민간기금으로 작은도서관에 꼭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생각하며 사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주신 기금추진협의회 위원님들의 말보탬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에 힘입어 작은도서관의 필요에 기금사용의 초점을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 기금을 통해 전국 작은도서관과의 인연을 다시 한 번 이을 수 있었습니다.

2018년 ‘작은도서관 긴급지원119지원사업’과 교육 지원 사업인 ‘작은도서관 ‘스스로’를 운영한 발자취를 여기 자료집으로 묶어 기록하고 기억하고자 합니다. ‘119지원사업’의 이름처럼 가장 절박한 사연을 선정해 약 50여개 작은도서관에 지원했습니다. 또 10개 지역 작은도서관 네트워크에서 ‘스스로’ 제안하고 기획한 교육을 ‘스스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지원 사업의 내용들을 읽어보니 단비, 마중물, 버팀목, 징검다리, 오아시스

등의 표현들을 가장 많이 하셨습니다. 오래되어 느려터진 컴퓨터를 새 것으로 교체하고 기술혁명을 이룬 듯하다는 곳, 40도를 뒹도는 이 여름 에어컨을 설치할 수 있어 가장 행복한 공간이 되었다는 곳, 냄새나고 잡동사니 물건으로 가기 싫었던 화장실을 가장 쾌적한 공간으로 바꾸었다는 곳, 지금까지 도와준 자원활동가들에게 작은 정성의 마음이라도 보낼 수 있었다는 곳, 지금까지의 고생에 대한 작은 보상으로 거뜬히 몇 해는 살 수 있다는 관장님, 밀린 공과금과 월세를 해결함으로써 좋은 책으로 작은도서관을 꾸밀 수 있게 되어 너무 행복해 하는 모습들이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작은’ 지원금을 너무나 ‘크게’ 사용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스스로 아카데미’에 붙여진 ‘스스로’가 지역 네트워크에 힘을 보탤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묻고, 답을 찾아나가는 과정은 ‘우리가’ ‘무엇을’ ‘왜’ 라는 근본적인 물음을 던졌고 지속적인 성찰을 필요로 하는 부분입니다. 경남 양산에서도, 강원도 인제에서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는 벗이 있음에 오늘도 작은도서관은 기댈 어깨가 있는 듯합니다. 모두가 함께 있음을 잊지 않길 바랍니다.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는 전국의 작은도서관 운영자들이 ‘희망’을 놓지 않도록 응원합니다. 작은도서관 모두와 함께 걸어가는 동행의 길에 좋은 벗이 되고자 합니다. 2018년 우리를 이어준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지원기금을 소중히 여겨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함께 한 소중한 인연을 계속 이어나갔으면 합니다.



2018 작은도서관 역사찾기2-다큐멘터리 제작

<작은도서관 함께읽을래?>

2018년은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가 20살이 되는 해였습니다. 90년대 말 약속이나 한 듯 전국에 작은도서관들이 생겼습니다.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회를 거쳐 (사)어린이와 도서관, (사)한국어린이도서관협회,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 이르기까지 작은도서관들은 긴밀한 네트워크를 통해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왔습니다.

그 역사를 정리하는 방법으로 2018년 협회가 선택한 방법은 다큐멘터리입니다.

다큐멘터리 제작팀은 2018년 7월 전체회원 워크숍을 첫 촬영으로 시작해 6개월에 걸쳐 전국을 누비며 작은도서관과 작은도서관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작은도서관의 역사를 이룬 20년 그리고 현재와 미래까지, 과거-현재-미래에 함께 하고 있는 사람들의 다양한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다큐멘터리 안에 담았습니다.

협회의 역사를 단단히 세운 역대 상임이사님들과 선배님들, 전국의 자원활동가와 이용자들을 다큐멘터리에서 만날 수 있었고, 현장의 고민, 새로운 방향성에 대한 관점도 담을 수 있었습니다.

작은도서관이 이야기하는 작은도서관!
진솔한 이야기를 만날 수 있어 기뻐했습니다

다큐멘터리 '작은도서관 함께읽을래?' 로
아카이빙을 만들 수 있게 해준 천준아 작가,
이재호 피디, 강민기 대표님을 포함한
제작사 모아스토리에 큰 감사를 드립니다.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18년 7월~2019년 1월

■ 사업개요

- 협회의 시작에서부터 2018년 회원도서관에 이르기까지 작은도서관 역사와 현장 이야기를 다큐멘터리에 담아 회원들과 공유하고 나눈다.

■ 사업일정

날 짜	내 용
6/27(수)	모아스토리와 다큐멘터리 제작 계약체결
7월	다큐멘터리 사전제작 미팅 1차
7/16(월)-17(화)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워크숍 休 첫 촬영
8월,9월	다큐멘터리 사전제작 미팅 2,3차
10/10(화)	흥부네그림책작은도서관 촬영
10/20(토)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촬영
10/26(금)-27(토)	광주 책문화축제 촬영(책돌이도서관 중심)
10/31(수)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촬영
11/4(일)-5(월)	제주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촬영
11/9(금)	순천기적의도서관 촬영
11/11(일)	역대상임이사 만남의 날 '웃으러모임' 촬영
12/19(수)	최종편집, 종합편집 후 종합회의
12/24(월)	다큐멘터리 추가촬영-(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사무실
2019.1.24.(목)	(사)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총회 공식상영

촬영 구성안

1.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흥부네그림책도서관

촬영
구성

< 그림책특성화 도서관 >
촬영일시 : 2018년 10월 10일 (수)

■ 스케줄&연락처 ■

- 일시 : 2018.10.10(수) 오전 9시 30분
- 장소 : 흥부네그림책도서관 / 블로그 <https://blog.naver.com/hongane0>
- 주소 : 구로구 고척로 1길 30

* 흥부네그림책도서관

: 이곳은 다큐멘터리 마지막 부분에 넣을 곳인데요. 생긴지 3년밖에 되지 않은 곳으로 기존의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과는 조금 다르게 확실히 그림책 이라는 콘셉트로 만들어진 곳입니다.
어린이와 작은도서관의 다양한 형태 중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 촬영 내용

엄마랑 아기랑 그림책모임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 보통 다섯 가족이고, 아이들은 16~32개월

그림책동아리 - 엄마들 모임 (오전 10시)

: 어머니들 7명 정도가 항상 모임

선생님들 int

- # 도서관 외경
- # 내부 sk
- # 그림책들 전시되어 있는 모습 sk
- # 선생님들 그림책 정리 ▶ 이 부분은 인터뷰는 이남지 선생님 외에도 젊은 선생님 두어분 인터뷰 다른 장소에서 진행해 주세요.

- Q. 도서관 소개 좀 해주세요.
- Q.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몇 분이나 되나.. 다들 인사 좀 해달라.
- Q. 이곳이 다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과 뭐가 좀 다른가?
(콘셉트나.. 책 관련 모임이나 활동이 있으면 소개)
- Q. 현재 진행하고있는 모임이나 프로젝트 뭐가 있나?
- Q. 어떤 분들이 많이 오는지?
- Q. 도서관 운영 기조나.. 방향이 뭔지 궁금하다.

엄마들 하나 둘 등장

- # 모여서 서로 이야기 하는 모습
- # 모임 진행하는 모습 SK - 현장을 잘 담기게 해주세요
INT/

- Q. 어떤 모임인가?
- Q. 시작이 어떻게 된건지? 현재까지 어떻게 모임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 Q. 어떻게 모임에 참여 하게 됐는지?
- Q. 모임을 참여하면서 달라진 점? 무엇인가?

엄마들 모임 진행되고

- # 아기들 소리 나는 곳으로 이동
- # 아기들이랑 엄마랑 함께 책 놀이 하는 모습
- # 선생님이 책 놀이 하는 것 도와주시고.

- Q. 아기들 몇 개월인가?
- Q. 어떤 책을 고르는 건지? 기준 있나?
- Q. 아이와 함께 이 모임에 참여하게 된 계기는?
- Q. 이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건지?
- Q.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가?

다양한 도서관 시설들 SK

- # 아이들 작품이나.. 이런 부분있으면 SK

2.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

촬영
구성

< 그림책특성화 도서관 >
촬영일시 : 2018년 10월 20일 (토)

■ 스케줄&연락처 ■

- 일시 : 2018.10.20(토) 오전 9시 30분
- 장소 : 늘푸른 어린이도서관
- 주소 : 인천광역시 연수구 샘말로 38번길 7

설립 1998.03.27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1998년 인천의 신도시인 연수구에 도서관이 없는 상황에서 어린이들에게 책 읽는 공간을 주고 싶은 지역주민들의 나눔에 의해 공간을 마련하여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다.

늘푸른어린이도서관은 좋은 책을 선정하여 어린이들에게 읽을수 있게 하며 동화모임을 통해 좋은 책들의 내용을 함께 공감한 부모들이 학교도서관을 새롭게 바꾸는 활동들을 하고 이후 연수도서관과 연수 어린이도서관이 만들어지는 밑거름을 만들어 왔다. 현재 연수도서관과 연수어린이도서관 운영위원회에 함께 참여함으로 연수구의 책읽는 문화를 만들기 위한 활동을 열심히 진행중이다.

* 늘푸른어린이도서관

: 이곳에서는 어린이도서관에서 성장한 아이들이 다시 도서관으로 돌아와 활동하는 모습을 담을 건데요. 이를 통해서 순환과 나눔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 합니다. 단순히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활동하는 것 뿐 아니라 사람의 성장에 도움을 주는 곳이다. 그래서 이들이 성장해서 다시 지역사회의 어린이들에게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능을 나눠주면서 함께 계속 성장하는 곳이 바로 작은도서관이자, 작은도서관이 해야할 역할이다.. 이런 이야기를 담을 예정입니다.

■ 촬영 내용

뮤지컬 배우 박요한 강의 (오전 10시~ 12시)

: 꿈꾸다 라는 주제로 진행되는 강의입니다. 아이들에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한 노력.. 왜 이런 꿈을 꾸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준다고 하네요.

1,2,3대 관장님 모임 sk

(강의 끝나고 나서 식사후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시간은 현장에서 조정해 주세요.)

박요한 & 어린이들 & 선생님들 int

도서관 외경

내부 sk

책들 전시되어 있는 모습 sk

꿈꾸다 강의 관련 플랭카드 나 관련한 것들 sk

선생님들 뭔가 분주하게 준비하고,

Q. 꿈꾸다... 이걸 어떤 프로그램 인가? (프로그램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

Q. 오늘 함께 해주는 분은 어떤 분인지 간단히 소개 좀 해달라

> 늦게 오시면 끝나고 연출해서 하나 찍을게요 <

박요한씨 등장

여러 선생님들 박요한씨 반갑게 맞이하고

잠깐 앉아서 대화 ▶ 이런 저런 사는 얘기하고.. 오늘 어떤 얘기할까다

등등 이런 식의 대화는 꼭 필요해요.

박요한씨 목플면서 준비하는 모습 SK

아이들 하나 둘 등장

아이들 선생님이랑 반갑게 아는척하고 자리에 앉고

꿈꾸다 프로그램 SK

* 전체적인 내용 담아주시돼~ 진행하는 분 / 듣는 아이들 / 보는 선생님들 리액션

조금씩은 담아주세요.

프로그램 끝나고 나서 아이들 반응

아이들 INT

- Q. 오늘 수업 어땠는지?
- Q.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였는지?
- Q. 도서관 오는 거 재밌나? 왜?

박요한씨 INT

- Q. 박요한씨 인사부터 해달라?
 - 현재 어떤일을 하고 있는지 소개 좀 해달라.
- Q. 오늘 강의 어땠나?
 - (좀 튀는 질문이나.. 아이들의 행동 있었으면 그거 연관해서 하나 물어봐 주세요)
- Q. 본인의 강의를 통해서 아이들에게 뭘 전달해 주고 싶었나?
 - 아이들이 좀 알아들은 것 같은가?
- Q.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게 된 계기나? 이유 있나?
 - 도서관에 처음어떤 계기로 오게 됐는지? (어릴적)
 - 계속 도서관을 다닌 이유가 뭐였는지도 궁금하다 (어릴적에)
 - 가장 기억나는 놀이는 뭐가 있었나?
- Q. 처음 참여는 언제 였나? 처음 하고 나서.. 계속 하게 된 이유가 있나?
- Q. 도서관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아 나도 이런 점은 좀 배운다 이런거 있나?
- Q. 박요한씨에게 작은도서관은 어떤 의미인가? 아니면 이곳에서 있었던 시간을 통해서 뭘 배우고 알게 됐나 궁금하다.

김경숙관장님 INT

- Q. 도서관 소개 좀 해주세요.
- * (소개하고 나서 말미에 우리 도서관은 뭐다 라고 딱 한마디로 말한다면? 그 이유는?)
- Q.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몇 분이나 되나.. 계시면.. 인사 해달라.
-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임이나 프로젝트 뭐가 있나?
- Q. 주로 어떤 경로로 아이들이나 엄마들이 오나? 혹시 아빠가 활동하기도 하나?
- Q. 도서관 운영 기조나.. 방향이 뭔지 궁금하다.

아이들과 박요한씨 돌아가고

1,2,3대 관장님 모여서 차 한잔씩 하시면서

SOV/ 프로그램, 요한씨 관련 얘기 도서관 돌아가는 얘기, 올해는 어땠다.. 등등

이런 얘기들 나눠주세요

Q. 3분은 어떤 사이세요?

(서로 소개하면서서 1,2,3대 관장이다)

Q. 오늘 같이 모인 이유 있어요?

(박소희 이사장님 - 요한이.. 아니 요한씨가 오늘 프로그램 때문에 온다고 해서 왔다.. 시간이 되면.. 우리 도서관들 프로그램 할 때 들른다. 특히 이곳은 내가 관장으로 있었던 곳이라 애정도 크고)

Q. 어떤 얘기 나누고 계셨는지?

(이은주- 오늘 요한씨 온 이야기 하면서. 아이들이 크고 성장해서..그냥 가버리는게 아니라 또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본인이 가진 재능을 나누고 하는게 정말 좋잖아요. 뿌듯하기도 하고. 요한씨는 우리랑 같이 성장한 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서.. 이렇게 함께 성장할 수 있게.. 프로그램을 더 다지자 그런 얘기 하고 있었죠)

Q. 관장님 어깨가 무거우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제가 앞으로 잘 해야 할 것 같은데요. 저도 오늘 굉장히 뿌듯한 시간이었어요. 단순히 도서관이었으면 못했을 일인데.. 어린이들과 함께하는 작은도서관의 밀착성.. 이렇게 있으니까 하지 않았을까요? 앞으로도 잘하려면 우리 아이들과 어머니들이 많이 도와줘야 하는데..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도요)

박소희 이사장님 INT

- 이곳에서 박요한씨를 보면서 순환, 성장, 나눔 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다. 어린이와 작은도서관의 역할이 뭐라고 생각하시나?
- 어린이들과 지속적으로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협회에서는 어떤 노력들을 하나?

이은주 실장님 INT

- 어린이들의 성장에는 활동가 역할을 해주는 부모님의 역할도 크지 않나? 어머니들을 활동가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들도 있나? (협회 입장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해 주세요. 다른 편에 인터뷰에 넣을거예요)

3. 광주 책돌이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광주 책돌이도서관

촬영
구성

〈 광주책축제+책돌이도서관 〉
촬영일시 : 2018년 10월 일 (수)

■ 스케줄&연락처 ■

- 일시 : 2018.10.26(금)~27(토)
- 장소 및 주소
 - : 광주 책돌이 도서관 - 광주 북구 우치로 235
 - : 광주 책축제 - 시청 문화광장

* 광주책돌이 도서관 + 책축제

: (사)어린이도서연구회광주지부 20주년, 책돌이도서관 10주년 관련 촬영인데요.
책 축제를 통해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의 역할,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함께 책을 읽는 문화 확산, 축제를 책을 통해서 즐길수 있는 콘텐츠로 만들고 있는 사람들.
만나는 것들 중심으로.. 중간이나 앞쪽에 들어가지 않을까 싶어요. 최대한 왈카한 느낌으로 사람들이 책과 함께 즐긴다.. 자연스럽게 책을 가까이 하는 느낌을 살려주시면 좋아요~
/ 책 있는 마을, 책 읽는 마을 / 이 주제를 살려주세요
* 참고로 첨부한 축제 관련 내용 읽어 보시고 부스도 미리 좀 보시면 좋습니다.
관장님이 열정적이고 즐거우세요. 이것 저것 여쭙보면서 인터뷰 다양하게 따오시면 좋을듯요.

■ 촬영 내용

책돌이 도서관

: 도서관 축제 준비 및 선생님들 인터뷰 (일부)

책 축제

: 축제 현장 sk + 일반인들 인터뷰

선생님들 int

10월26일 - 책돌이 도서관에서 짐과 책을 빼는 과정. (윤하(남) → 10년 동안 활동함)
10월27일 - 오전 11시 광주광역시청 문화광장 // 청소년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한다.
(20년 기념으로 축제를 열기로 함 ▶ 도서관 전시 기획 ▶ 각 도서관에 흩어져 활동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자. ▶ 오로지 책을 보고 즐길 수 있는 방법 고민 ▶ 모든 부스 (20개 정도) 가운데는 놀이터 시설도 있음)

* 어린이도서연구회 ▶ 책돌이 도서관은 부스 4개 //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에서 지원해서 진행된.. 책돌이 도서관... 확장되어진 활동

1) 책돌이 도서관 촬영

- # 도서관 외경
- # 내부 sk - 혹시 아이들이나..누가 들어가는 장면 있으면.. 그 사람 따라서 팔로우
- # 전시 돼 있는 것들 sk (동화책이나. 일반 책들)
- # 이용하는 사람들 - 아이들 엄마들 상관없음
- # 일하시는 선생님들..
 - 책이 빈곳을 정리 한다던가
 - 뭔가 같이 모여서 정리나. 얘기 나누는 것처럼 세팅
 - “ 책 축제 관련한 대화 ”
- # 선생님들 int

[이향림 관장님]

- 먼저 책돌이 도서관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주시라 (어떤 도서관인지?)
- 책돌이 도서관의 모토는?
- 이용하는 이들은 주로 어떤 이들?
- 이곳이 다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과 뭐가 좀 다른가?
-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프로젝트 무엇이 있나?
- 주변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책돌이 도서관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작은 도서관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다른 선생님들]

- 현재 하고 있는 다양한 활동 프로그램 중 대표적인 것들 소개해 달라
- 어떻게 해서 이곳에서 함께 하게 된건지?
- 주변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책돌이 도서관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작은 도서관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 * 혹시 사서가 활동가 청소년이나 어르신들이면 인터뷰도 꼭 따주세요.
- * 사업 진행으로 어르신들도 도우미로 활동하신데요 (활동비도 지급된다네요)
 - 어떻게 활동하게 됐는지?
 - 어떤 역할을 하는건가?
 - 주로 몇시 부터 시작해서 몇시 까지 하는지?
 - 이런 활동의 즐거움은 무엇인가?

2) 광주 책축제 - 전체 sk도 있지만 책돌이 도서관 중심으로 팔로우도 좀 있어야 합니다.

- # 시청 광장 풍경 sk
- # 차량 들 줄줄이 들어오고 + 사람들 들어오고
- # 준비하는 사람들
- # 책돌이 도서관 사람들 들어오고
- # 부스들 정리하는 모습
 - 오늘 몇 개 부스 운영하나? 4개 어떤 부스들인가 소개해달라
- # 부스들 정리된 모습 sk
- # 다른 부스들도 sk
- # 활동하는 사람들 들어와서 왁자한 모습
- # 선생님들 끼리 파이팅!! 즐겨보자.. 뭐 이런 구호 외쳐도 좋을 듯

- 오늘 축제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 주제가 뭐예요? (책으로 온전히 즐길수 있는... 그런 축제.. 알려주고 싶다)
- 오늘 어떤 마음으로 축제 함께 하실건지.. (우리도 즐길거다.)

- # 사람들 다양하게 즐기는 모습
- # 청소년 활동가들 함께 하고
- * 현장에 책돌이 도서관을 오랫동안 이용하고 활동하는 친구들이 함께 한다고 합니다.
 - 그 친구들 인터뷰 따지면 좋을 것 같아요.
 - 언제부터 도서관 다니기 시작했는지? 계기는?
 - 다른 도서관이랑 여기가 뭐가 다른 것 같은가? (본인 느끼기에)
 - 도서관에 자주 올수 있었던 이유가 뭔가?

- 오늘 여기서는 어떤 활동 하는지?
- 주변친구들이나.. 사람들에게.. 책돌이 도서관처럼 우리에게 가까이 있는 작은 도서관들에 대해서.. 홍보를 한다면?



4. 순천기적의도서관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순천기적의도서관

촬영
구성

〈 기적의 도서관 〉
촬영일시 : 2018년 11월 9일 (금)

■ 스케줄&연락처 ■

- 일시 : 2018.11.09(금) 오후 1시~
- 장소 : 순천기적의 도서관
- 주소 : 전라남도 순천시 해룡면 기적의도서관길 60

* 순천기적의 도서관

: 다양한 형태의 도서관들에 대해 소개할 때 사용할 곳입니다.

: 순천 기적의 도서관은 다양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어린이들이 원하기만 하면 누구나 쉽게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기적의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한 살 아기 때부터 책과 친해지고 도서관과 친해질 기회를 갖도록 운영되며, 책 읽기는 물론, 이야기 들려주기, 노래, 춤, 그림, 영상, 공작, 낭송, 연극 등 많은 활동들이 책 읽기와 연결되어 진행되는 “살아있는 도서관”, “재미가 넘치는 도서관”으로 운영된다.

■ 촬영 내용

팝업 꽃카드 만들기

도서관 소개

선생님들 int

도서관 외경

내부 sk - 다른 도서관과 좀 다른 공간이 있으면 그 부분을 촬영 해주세요

그림책들 전시되어 있는 모습 sk

선생님들 인터뷰

Q. 도서관 소개 좀 해주세요.

/ 기적의 도서관이 어떤 곳인지를 중심으로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

/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과 어떻게 연계가 되어 있는건지? /

Q.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몇 분이나 되나.. 다들 인사 좀 해달라.

Q. 이곳이 다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과 뭐가 좀 다른가?

(콘셉트나.. 책 관련 모임이나 활동이 있으면 소개, 주요 활동이나 특성 있으면 그대로)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임이나 프로젝트 뭐가 있나?

Q. 어떤 분들이 많이 오는지?

Q. 도서관 운영 기조나.. 방향이 뭔지 궁금하다.

Q. 15주년이다 어떤 도서관이고 싶은가?

어떤 도서관으로 발전하고 싶은가?

아이들 오고

선생님들 수업 준비하고

수업 하는 모습 sk - 현장을 잘 담기게 해주세요

INT/ 선생님

Q. 어떤 수업인가?

Q. 이 수업의 효과? 목적은 뭘까?

INT/ 참여자들 인터뷰

Q. 이곳을 어떻게 알고 찾아온건지?

Q. 평소에도 자주 이용하는 편인가?

팝업카드 작품들 SK

5. 제주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주착한여행 - 여행사 / 북타임 (책방)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제주설문대어린이도서관/
제주착한여행
- 여행사/ 북타임 (책방)

촬영
구성

〈 어린이 도서관 활동가들의
다양한 활동 〉
촬영일시 : 2018년 11월 3일(토)~5일(월)

■ 스케줄&연락처 ■

1) 설문대 도서관 아이들 놀이 학습

- 일시 : 2018.11.3(토) 오전~
- 장소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www.seoli.kr / 064-749-0070
- 주소 : 제주 제주시 신대로10길 48-9

2) 설문대 책축제

- ▶ 이 부분부터는 이사장님이 셀프 카메라 형식으로 빅시아 들고 촬영
- 일시 : 2018.11.4(일)
- 오전은 전체 공개 축제/오후 늦게 or 저녁에 20주년 기념 행사를 합니다.

3) 착한여행 + 임기수 선생님 책방 방문

- 일시 : 2018.11.5(월) / 일정은 현장에서 조절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허순영 선생님과 임기수 선생님 일상 sk

* 북타임 -임기수 책방 (설문대 초대관장님이십니다)

: 현재는 책방운영 또 다른 활동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책을 읽을 공간과 책에 대한 소중함 전파.

* 착한여행- 허순영 전 이사님이 운영하는 여행사 / 협회 초창기 멤버

: 허순영관장님은 초대 협회의 주요멤버로서 이사도 역임함. 순천기적의도서관 관장을 역임하셨고, 이

후 제주로 가서 공정여행가와 문화 활동가로 활기차게 활동하고 계심. 초기의 이야기를 아름다운 풍광에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임

■ 촬영 내용

설문대어린이도서관 - 아이들 활동 & 선생님들 인터뷰

: 보통 다섯 가족이고, 아이들은 16~32개월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책축제 & 20주년 기념

& 이사장님 + 허순영 선생님+ 임기수 선생님 옛날 이야기

허순영선생님 여행사 생활 sk + 임기수 선생님 책방 sk

* 제주도의 아름다운 풍광들 많이 담으시면.. 중간 중간 밑그림으로 쓸수 있을듯해요

▶ 바람에 갈대 날리는.. / 바다 풍경/ 해뜨고 지는 모습들 / 해안 도로/ 자전거 타는 사람들 / 숲속 풍경 등등 .. 이미지 컷으로 생각하시고 찍어주세요

1] 설문대 도서관 어린이들 프로그램

도서관 외경

: 놀이가 외부부터 시작이 되면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아이들 놀이 쪽 팔로우 해주세요

- 선생님 int

- Q. 어떤 프로그램 인가? (설명)
- 어떤 효과? 목적이 있는 프로그램인지?
- Q. 프로그램을 하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은?

- 아이들 INT

- Q. 참여해 보니까 어떤가? (기분에 대해서..)
- Q. 뭐가 제일 재미있었는지?

* 여기서는 별다른 거 없이 프로그램 sk + 팔로우

2] 설문대 도서관 SK

도서관 내부 sk

선생님들 인터뷰- 관장님과 선생님 적절히 섞어허 새주세요

Q. 도서관 소개 좀 해주세요.

Q.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몇 분이나 되나.. 다들 인사 좀 해달라.

Q. 이곳이 다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과 뭐가 좀 다른가?

(콘셉트나.. 책 관련 모임이나 활동이 있으면 소개)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임이나 프로젝트 뭐가 있나?

Q. 어떤 분들이 많이 오는지?

Q. 도서관 운영 기조나.. 방향이 뭔지 궁금하다.

3] 설문대어린이 도서관 책축제

책축제 당일 현장 SK

준비하느라고 분주한 선생님

Q. 오늘 어떤 날인가?

Q. 축제의 콘셉? 주제는 뭔가?

준비된 부스나 체험 거리들 SK

둘러보는 사람들 가족들

Q. 어떻게 알고 왔나

(만일 이곳에 프로그램에 자주 참여한다고 하면 다른 도서관과 무엇이 다르며 어떤 프로그램이 제일 좋은지?)

(처음 와보는 분이면 - 와 보니까 어떤지? 뭐가 제일 좋은지?)

Q. 오늘 책 축제 프로그램 어떤가? (즐거본 감상)

> 여기서부터는 이사장님 셀프캠 시점 촬영도 동시에 진행하셔야 합니다. <

셀프 카메라 조정 하는법 PD한테 배우는 이사장님

* 알려주실 때 셀프스타일과 촬영 스타일 2가지 다 알려주세요.

혼자서 셀프 카메라 사용해서 찍어보고 -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뭐라도 말해주셔야 해요.

셀프 카메라 들고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들어가고

여러 사람들 만나서 인사~

카메라에 인사해 달라고도 하시고

반가운 사람들 소개도 하고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관장님과 대화 (시간을 내서 한 20분정도만)

▶ 빅시아는 대화시에는 대화자들 얼굴 볼수 있게 테이블 위에 세팅해 주세요

대화주제 :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의 지금이라는 주제로 대화

EX.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 요즘은 어떤가??? 사람들의 반응 ?

제일 호응도 좋은거? / 앞으로 방향? / 필요한 것들

외경 해질 녘 하나주고

저녁 20주년 기념회 준비

허순영, 임기수 선생님 등장

반갑게 인사나누고

20주년 기념회 진행되고 SK

세분의 대화 (이사장님 허순영, 임기수 선생님)

대화주제 :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초창기 시절 이야기

년도도 대략 얘기해 주시면 자료 넣을 때 좋을 것 같습니다.

EX. 당시의 상황, 제일 힘들었던 점, 그래도 좋았던 그 시절,

세분의 대화 모습 (다양한 각도로) - 예쁘게

4] 허순영 선생님 & 임기수 선생님의 현재

임기수 선생님 책방

- 외경

- 내부 구조sk

- 내부에서 책 정리하는 선생님

int/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 어떤 콘셉트의 책방인가? / 설문대어린이 도서관의 초대 관장

에서 책방지기로 변신 어떤계기?/ 이것 또한 또 다른 활동가로의 변신인가?

허순영 선생님 여행사

: 이곳에서는 여행 자료 사진이나 영상 받을수 있으면 받아주세요

- 직원들이랑 일하는 모습

- 여기 저기 붙어 있는 다양한 사진들이나 여행 자료들

int/ 이곳은 어떤 곳인지 설명 / 착한여행 공정여행이란 뭔가?

이쪽 일을 하게 된 계기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에서의 활동가로의 모습에 연장선이라고 봐도 좋을까?

6.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촬영
구성

〈 지역구의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내에
들어간 도서관 〉
촬영일시 : 2018년 10월 31일 (수)

■ 스케줄&연락처 ■

- 일시 : 2018.10.31(수) 오후 1시 ~
- 장소 :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 / 사이트
<http://www.gdlibrary.or.kr/small/main.do>
- 주소 : 서울특별시 강동구 구천면로42길 60 천호동 노외주차장

* 도서관 관련 정보

:point:/// 서울시 강동구의 열린사회시민연대에서 위탁으로 운영되는 구립작은도서관 일산에서 운영되던 웃는책이 문을 닫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강동구에서 운영 다양한 독서동아리, 북큐레이션 등으로 유명

: 천호동에 위치한 천일어린이도서관은 다수의 독서문화 프로그램 및 독서모임 동아리가 활발히 운영중인 구립작은도서관이며, 열린사회 강동송파시민회가 강동구청으로부터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촬영 내용

선생님들 int

거리도서관 - 놀이터에서 책읽어주는 프로그램 (오후 3시 30분)

: 도서관 바로 앞의 놀이터로 책을 가지고 나가서 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몸놀이 (오후 5시)

: 그림책을 읽고 몸으로 표현하는 것

: 참여인원은 10여명 진행 하고 있음

[참고자료 - 거리 도서관 관련]

거리도서관 사업

“웃는책은 이제 거리도서관으로 찾아갑니다”

1. 거리도서관이란?

강동구립 천일어린이도서관 웃는책이 도서관을 찾지 않는 아이들을 위해, 아이들이 많이 오가는 곳에 책 수레에 책을 실고 가, 가져간 책을 펼치고 읽어주는 도서관이다.

2. 왜 거리로 나섰나요?

천호동에는 아이들이 많이 있다. 학교를 마치고 뻘뻘한 학원 일정을 채워야 하는 아이들도 있지만, 돌봄의 손길이 필요한 아이들도 제법 있다. 또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도서관을 찾아오기 힘든 아이들에게는 집 근처에서 책을 읽을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다. 그런 아이들이 책에 흥미를 느끼고, 책읽는 즐거움을 느끼게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 지역 주민들에게도 어린이들에게 책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와, 책읽어주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려, 어른과 아이 모두가 책에 친근하게 다가가는 기회를 주고자 한다.

3. 거리 도서관을 통해 어떤 것을 얻게 되나요?

- 평소 책을 멀리하던 아이들에게 책의 흥미를 이끌어 낼 수 있다.
- 지역주민들이 책문화에 좀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다.
- 우리 동네에 언제든 찾아갈 수 있는 편안한 작은 도서관이 있음을 알리는 기회
- 책읽어주기 리플렛을 배부하면서 어른들에게 책읽어주기에 대한 필요성을 알림
- 책읽어주는 활동도 홍보하면서 자원활동가 참여를 이끌어 낼 수 있다.

4. 언제? 어디서?

- ① 일시 : 4월11일(수)부터 11월 14일(수)까지
- ② 장소 : 천일어린이공원
- ③ 시간 : 늦은 3시30분~5시
- ④ 대상 : 아이들, 어른 누구나 *우천시 취소됩니다.

도서관 외경

내부 sk - 특히 북큐레이션이 특징적인 곳이거든요! 그 부분 살려서 찍어주세요.

책들 전시 되어 있는 모습 다양하게

- int/ - 북 큐레이션 관련해서 여쭙고 싶다. 언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
 - 북큐레이션을 하고나서.. 이용자들의 반응이나 달라진 점이 있다면?
 - 북큐레이션을 할 때 가장 신경쓰는 부분은 뭔가?

* 혹시 이용하는 분들 있으면 인터뷰 해주세요

다른 도서관이랑 책이 놓여 있는 부분이 좀 다른데..

양쪽다 이용해 보셨으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차이점에 대해서 물어봐 주세요.

도서관 관련 인터뷰 / 정식으로 앉아서 해주시거나.. 북 큐레이션이 잘 보이는 쪽으로

int/ 관장님이나 선생님 나눠서 진행해 주세요

Q. 도서관 소개 좀 해주세요.

Q. 같이 일하는 선생님들 몇 분이나 되나.. 다들 인사 좀 해달라.

Q. 이곳이 다른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과 뭐가 좀 다른가?

- 추가) 어린이와 작은도서관과 구립에서 관리되고 있는 구립도서관 형태나.. 운영 면에서 뭐가 다른가? (장. 단점?)

Q. 천일어린이도서관은 일산에 있었던 웃는책의 정신을 그대로 이어 받았다고 들었다. 어떤 식으로 정신을 이어 받고 있나 궁금하다.

이 부분인터뷰 할 때 현판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면 현판을 걸던지 들고 하시면 좋을 듯해요.

Q. 현재 진행하고 있는 모임이나 프로젝트 뭐가 있나?

Q. 도서관 운영 기조나.. 방향이 뭔지 궁금하다.

선생님들 거리도서관 나갈 준비 하시고.

책 수레에 싣고

Q. 이걸 뭐가? - 책수레다.. 지금. 거리 도서관 나갈 준비?

Q. 거리 도서관이 뭐가?

선생님들 책 수레에 싣고 놀이터로 나가고

아이들 있으면 책 읽어주고.. - 어른들도 계시면 좋을 것 같네요.

거리 책 도서관 진행하는 것 SK

책 읽어준 아이들 OR 어른들 인터뷰

Q. 이용해 보니까 어떤가?

(좋다. 얼마나 대답듣고.. 이유도 물어봐주세요. 아이들이면 간단하게)

선생님들 도서관 마치고 안으로 들어오고

책 정리하고

선생님 한분 등장 - 반갑게 인사하고

선생님들이랑 강사 선생님 같이 오늘 몸놀이에 대한 이야기 나누고

(이야기 나누는 현장음에 반드시 몸놀이라는 단어 들어갈수 있게 따주세요)

- 이 인터뷰는 관장님

Q. 몸 놀이가 뭔가요?

Q.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된 건지?

하나 둘 오는 아이들

뭔가 준비하고

몸놀이 하는 모습

- 강사 선생님 인터뷰

Q. 몸 놀이를 하고 나서 아이들의 반응?

Q. 몸 놀이를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시는지?

Q. 책과 몸의 움직임(춤)과 결합하는 프로그램 준비가 힘들지 않나?

-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시지 궁금

아이들 즐거운 모습 SK

잘하거나 엉뚱하게 하는 아이들 SK

- 아이들 인터뷰

엄마들 하나 둘 등장

모여서 서로 이야기 하는 모습

INT/

Q. 어떤 모임인가?

Q. 시작이 어떻게 된건지? 현재까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궁금하다.

Q. 어떻게 모임에 참여 하게 됐는지?

Q. 모임을 참여하면서 달라진점? 무엇인가?

- # 다 모인 엄마들 영화상영에 대한 이야기 - 어떤 영화인지, 뭐 이런 부분
- # 영화 상영준비
- # 엄마들 영화 보는 모습 SK



최종대본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더빙
원고

더빙일시 : 2019년 1월 2일 (수) 오후
방송내용 :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기록
연출/구성 : 이재호 피디 / 천준아 작가
NA :

[프로로그]

# 외경	5"	뜨거운 여름 햇볕이 대지를 달구기 시작할 무렵.
자막/ 2018년 7월 16일, 부여		
# 플래카드 6"		전국의 어린이와 작은 도서관 사람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하단/ (사)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회 워크숍		
# 사람들 걸어 올라오고		(보고)
# 강당 사람들 12"		1년에 한번 전국에서 활동하는 회원 모두가 모여, 하나가 되는 화합의 장. 올해는 '휴' 라는 주제로 워크숍이 열렸습니다.

상황/ 1년에 한번 모든 회원들이 모이는 화합의 장

선서하는 sov
말 자막/ 우리는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제회 休 올림픽을 맞이하여 다음과 같은 자세로 임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 상황/ 다짐한다 ▶ 뒤에 사람들 있는데에 자막 올라오는 효과 줄 것

네임- 박소희/ 상임이사장

지금으로부터 2018년 사단법인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협회
休(휴) 체육대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람들 흥겹게 놓고 20”
- 사람들 서로 모이려고 하고

(다 같이 춤따라하는거 보고)
매 년하는 워크숍이지만
올해는 조금 특별합니다.
전국어린이작은도서관협의회로
출발한 협회가
20년의 역사를 갖기까지,
동거동락 해온 회원들을 위해
마련한 휴식 같은 시간입니다.

사람들 토론장에 모이고 4”

(보고)

SOV/ 더불어서 숲을 이루자

듣는 사람들 5”

2019년 새롭게 시작되는
목표를 위해 치열하게 고민하는
장이고,

조 토론 및 작업 9”
- 전지 들고 있는 사람들

어린이 서비스와
작은 도서관의 역할 등
'작은도서관스러운 길' 을
찾기 위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sov/ 사서들의 한계가 이용자들을 대면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어서

sov/
심지어 안내데스크 나이 드신 경비 분들이 계시고 사서가 밖에 나와서
대면서비스를 해야 된다. 주민들이 와서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 하면
서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사람이 안내데스크에 있는 게 맞다.

사람들 얘기하는 4”

'작은도서관' 만의 길을 만들고
걸어온 지난 20년!
그 길에서 우리가 찾은 것은
무엇일까요?
지난 20년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해답을 찾아 보겠습니다.

그림구성

타이틀 : 창사 20주년 이야기 - 함께 읽을래?

네임 - 박소희 / 6대 상임이사장

상황/ 협회의 20년 사를 다루는 다큐멘터리 제작
상황/ (체인지)20년을 함께 한 사람들과 그들의 이야기
상황/ (체인지)20년의 발자취를 돌아보는 시간

외경

하단자막/ 2018년 11월11일 , 서울 망원동 (장소랑 날짜 나올 때.. 효과음)

책 보이고 5”

2018년 11월,
아주 특별한 이사회가 열렸습니다.

누군가 들어오고 7”

이름 하여, '웃으러 이사회'!
협회 20주년을 맞아 마련된
자립니다.

sov/ 사단법인 만들어 지기 전에 협의회 시절이 있었어요 1998부터 2004년

이미경 선생님 보이시죠

* 아래부분 자막은 풀샷에서 사람들 이야기 할때는 말하는 사람 위치 찾아서
나팔 자막으로 처리해 주세요. 머리위로 자막 나오게. 원샷이면 그냥 말자막보다는 볼드한 상황체로 사
용!
나팔자막/ 저런 적이 있었어요

나팔자막/ 너무 소녀 소녀 하지 않아요?

나팔자막/ 20대인데 20대

나팔자막/ 너무 새롭다

나팔자막/ 나도 30대가 있었어요.

사람들 옛날 이야기 7”

어린이와 작은도서관
그 시작을 돌아보는 추억의
시간입니다.

int/ 네임- 김소희 / 1대 상임이사

전에는 어린이작은도서관 협의회 수준으로 곳곳에서 어린이 도서관 하시는 분들이
주기적으로 만나서 서로의 어려움을 토로 하고, 도움을 받고 했었다가

int/ 네임-공유선/ 4대 상임이사

큰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책 문화공간으로서 어린이를 중심으로 다양한 일을
해보자 의기투합한 사람들의 모임. 그 모임이 어떤 형식을 띠 것인가는 4-5년에
걸쳐서 형식이 나타나는과정을 겪었습니다.

통자막 작은도서관, 모이다

사단법인 12”

2005년부터 ~2006년 2년에 걸쳐
협회에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전국어린이도서관협의회에서
사단법인으로 한 단계 성장하게
됩니다.

창립총회와

당시의 화두는 ‘도서관’ 으로서의
인정! 이에 맞춰 창립총회와 함께
사단법인 어린이와 도서관

선포식

창립 선포식을 열고,
공격적으로 작은 도서관에 대해

알리기 시작합니다.

창립총회 10” ▶ 그림 줄이기

(사) 어린이와 도서관 창립선포식 10” ▶ 그림 줄이기

int/ 네임- 김소희 / 1대 상임이사

어린이 도서관이라는 말이 지금처럼 공공도서관으로 인정받지 못했을 때예요.
지금은 우리는 공공도서관이라고 되어 있지만 그때는 사회적으로
‘너희가 무슨 도서관이야?’ 사서 있어? ‘180평 넘어’ ‘전산직원 3명 있어?’
이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도서관계로부터도 ‘유사명칭이다’ ‘경찰에다 신고하겠다’
이런 말도 들을 때라, 도서관으로서 인정받게 하는 것 그게 제일 어려웠던 것
같아요.

통 자막 2007-2008 협회, 조선학교를 가다

우리동네에 도서관이 있다 발간 10”

‘작은도서관’ 개념이 무엇이고
어떤 역할을 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치열한 시기였습니다.
작은 도서관을 알리기 위해
‘우리동네 도서관이 있다’ 라는
책을 발간하기도 하고,
밖으로는 재일 민족학교 어린이
책 문화 교류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말과 글을 매개로 우리 책 속의
문화를 찾고, 동질성 회복을 위한
프로젝트였습니다.

재일민족학교 16“

(여기도 맞춰서 즐겨주세요)

int/ 네임- 이미경 / 2대 상임이사

2007,2008년은 암흑기로 들어가는 때 (입니다) 국립중앙도서관에서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고 했지만, 가치의 혼란이 있었죠.
어린이도서관이 작은 도서관의 확산과 어떻게 연계를 맺을 것인가 하는 고민도
하기 시작했고, 일본에 책나눔 활동에 대해서도 회원들 간의 갈등도 있었던
시기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혼란이 힘들었던 시기였죠.

2009-2010 협회, 작은 도서관을 위탁하다

마포구 늘 푸른소나무작은도서관, 꿈을 이루는 작은도서관
성메작은도서관, 아름드리작은도서관 위탁 12" + 초록공간 6"

마을문고 형태를 이루고 있던,
지역사회의 도서관들을 위탁받아
운영하는 일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시기였습니다.

'작은도서관'은 누구나 편하게 오고
책만 읽는 곳이 아닌 다양한 체험과
나눔의 공간이 되는 곳이라는
인식이 널리 확산됐습니다.

2011-2012 협회, 평화를 이야기 하다

평화도서관 프로젝트 달라도친구 순회전시 7" + 별별마을 4"

평화를 나누는 도서관 평화 음악회,
'비무장지대 봄이 오면' 순회전시 등
평화도서관 프로젝트가 중심이 되는
해였습니다.

또한 별별마을 책읽는 도서관의
'청소년 인문학소풍' 사업도 진행이
됐습니다.

2013-2014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작은도서관이 아름답다 출판 1천부 출간 8" + 10" (좀 줄여주세요)

작은 도서관이란 무엇인가 라는
화두를 담은 책을 출간하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정의를
공고히 했습니다.

이와 동시에 체계적인
도서관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발간하고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 줄여주세요 영상

2015- 2018 사람을 키우고 성장 시키다

문화가 있는날 5" + 책친구 10:

2015년부터 2018년까지는
사람들에게 주목을 하기 시작합니다.

▶ 그림 줄여주세요

활동가들과의 결속을 다지고
앞으로의 운동을 위한
회원워크숍에 힘을 쏟습니다.

해외도서관 탐방 6"

도서관의 발전을 위한
해외 도서관 탐방도 적극적으로
시작이 되죠.

작은도서관 무슨책 읽어 6" +센터 6"

작은도서관에 구비해야할 책에
대한 고민은 '작은도서관 무슨책
읽어' 라는 활동을 통해 함께 고민을
나눴고,
도서관 지원을 위한 센터도 마련
했습니다.

임시 이사회 4"

숨 가쁘게 달려왔던 지난 20년

sov/ 협회에 대한 정체성도 갖고 알려야 겠다는

임시 이사회 8" ▶ 2차 임시 이사회.. 인선총회

다양한 프로젝트를 이뤄내고,
6번의 인선을 거치는 동안
작은 도서관 역시
많은 변화를 겪었고,
또 성장했습니다.

아주 특별한 '웃으러이사회' 진행 13" (그냥 밑그림)

그리고 그 중심에는
수많은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작은 도서관이 있을 수
있었던 겁니다.

/ 브릿지 /

상황 / 20년동안 치열하게 고민하고 성장해온 작은도서관

상황/ 현재 작은도서관의 모습은 어떨까요?

상황/ 각각의 도서관의 모습과 활동

배 가는 풍경 11"

(풍경 한 5-6초 보고)
남쪽의 아름다운 섬 제주.
이곳에도 어린이와 작은도서관의
활동은 활발합니다.

바람부는 나무 풍경 6"

특히 아름다운 자연환경을 중심으로
체험이 이뤄지는 것이
특징입니다.

도서관 주변 숲 풍경 3"

(보고)

아이들 모여 있고 18"

가족중심의 건강한 여가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한
'꿈다락 토요문화 학교' 가
대표적인 프로그램인데요.
어린이들이 자연 속에서
휴식을 취하고, 문화예술을 통해
아이들의 감수성을 키워나가는데
도움을 주는 놀입니다.

int/ 어린이 인터뷰

(나무가) 제가 읽어주는걸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본것 같아요.

애들 아~ 소리지를때까지는 보고

손수건 묶어주면.. 7"

아이들은 이 놀이를 통해서
자연을 느끼고 사람과 소통하는
법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됩니다.

sov/ 배를 잘 운영해야 간다

sov / 쓰러지지 않고 서로가 같이 의지를 하고 있을 거야
그래서 태풍이 몰아쳐도 너희들이 무너지지 않을 거라 생각해

int/ 숲에서 노는 거예요. 혼자 노는것이 아니라 친구들을 다 같이 만나서
아이들이 함께 노는 그런 놀이를 추구하고 있거든요.
요즘 아이들이 워낙 혼자 놀고 게임하고 이러는데, 자연에서 또래들과 동생들과
형들과 누나들과 다 같이 어울 어지는 것을 추구하면서 이 놀이를 하고 있어요.

외경 4"

도서관 풍경 sk 18"

아름다운 자연 속에 자리한
설문대 도서관은 1998년 10월에
문을 열었습니다.
좋은 어린이 책과 문화 활동을 통해
아이들이 올바른 가치관과 인격을
갖출 수 있도록 이끌어 주겠다는
것이 목표입니다.

int/ 저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서 십년이 넘게 올수 있었던 것은
사랑방 같은 곳이거든요. 꼭 책을 읽어야 하는 도서관 보다 여기 오면 (사람들이랑)
푸념도 하고, 서로 이야기도 나누고 가치관 이야기도 하고,
마음이 전달되는 사랑방 같은 곳이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책도 당연히 따라오는 것 같고요. 저희의 생활이 그러니까요.
책을 읽는 것보다 사랑방 같은 곳에서 책은 곁들여지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엄마들 뭔가 만들고 12"

처음에는 책을 보러 왔다

만남 이들이 소통하며
함께 만들어 가는 도서관
설문대 어린이 도서관은
지역주민들의 삶에 깊숙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s0v/ 접근처에 작은 도서관이 있으니까 이런 행사도 오고 책도(읽고),
놀이도 하고 좋은 것 같아요.

sov/ (작은도서관은)자유롭고 내 집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딱딱한 공공도서관이 아니라 동네 친한 언니 집에 놀러온 느낌이에요.

풀샷 - 공연하는 모습
자막/ 2018년 11월 4일

아이가 글 읽고 - 발표
자막/ 설문대어린이도서관 20주년 기념행사

춤추고 박수 8”
설문대어린이도서관
20주년 기념행사에 지역주민들이
함께 했습니다.

int/ 강영미 관장 - 설문대어린이도서관
오늘 콘셉트는 올해 설문대도서관이 20주년 되는 날이에요.
뭘 할까 고민을 하다가 20년동안 설문대도서관에서 활동했던 활동가들에게
선물을 주고 싶다가 큰 목표예요. 그래서 즐기라고 '아무나 유랑단'은
공연무대가 필요한 누군가를 위해서 무대를 만들어 놓고 활동가들이 와서
즐기라는 무대예요.

2부 공연 소개(실내)
맞습니다. 누구나 올수 있고,
함께하는 모습.
가장 작은 도서관다운 모습이
아닐까요?

설명하는 사람 (현장을 듣고)

자막/ 무대의 시작은 박수!!

연주 하는 1” (피아노+ 플룻) (좀 듣고)
- 다시 플룻

‘함께’ 라는 작은 도서관의 정신에
맞게, 20주년의 무대 또한
다양한 활동가들을 위해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누군가 들어오시고

설문대어린이도서관 20주년 행사에
특별한 이가 찾아왔습니다.

반갑게 인사

설문대 어린이도서관의
초대 관장인 허순영 선생님입니다.
(잠깐 반가워하는 것 좀 보고)

함께 고락을 했던,
박소희 이사장에게는 누구보다
반가운 손님이라는데요

외경

지금은 다른곳에서 활동가로

투샷

지내는 허순영 선생님과

작은도서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자막/ 98년 10월에 개관한 설문대도서관

자막/ 아이들에게 맞춤형 책을 선물

자막/ 파랑새어린이도서관을 보고 영감을 얻어서 어린이도서관 운영

Q. 파랑새어린이 도서관에서 얻은 영감은?

자막(볼드하게)/ 어린이도서관이란
책을 매개로 오롯이 아이들을 만날수 있는 공간

자막/ Q. 공적인 기관에서의 활동과 어린이도서관에서 활동의 다른 점, 같은 점은?

자막/ 같은점 : 도서관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

자막/ 다른점 : 기적의 도서관 프로젝트 , 지역주민들의 참여 유도 의 어려움

Q. 후배들에게 전할 말이 있다면?

자막/ 작은도서관, 어린이 도서관의 중심은 ‘사람’

자막/ 시대는 바뀌어도 작은 도서관이 잘되도록 지원하는 협회이길

자막/ 사람을 놓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순천기적의 도서관 외경 7” 허순영 선생님이 초대 관장을 지냈던 기적의 도서관 1호인 순천기적의도서관.

자막/ 순천기적의 도서관

내부 SK 12” - 도서관 소개 (좀 보다가)
아이들이 책과 친해질 수 있는
여러 활동이 많아서
살아있는 재미있는
도서관이라고도 불리는 곳입니다.

비밀의 정원

INT/ 정봉남 - 순천기적의도서관
2003년에 문을 연 어린이 전용도서관이고요 전국에서 가장 먼저
기적의 도서관으로 문을 열었습니다.

도서관 시설 20” -
- 틸다운 하면
기적의 도서관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공간입니다.
마루형식을 차용해
신발을 벗고 들어가서 맘껏
활동할 수 있도록 설계돼 있습니다.

INT/ 정봉남 - 순천기적의도서관
아이들 특성상 (도서관에)들어오면, 양말 딱 벗어던지고,
신발 벗고 들어와서 뒹굴거리기도 하고, 잠도 자고
활동반경이 넓기 때문에 온돌마루를 깎았어 이곳이 처음이었어요.
지금은 모든 어린이실이나 어린이도서관의 기본베이스가
온돌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 첫번째 모델이었던 거고요.
그 공간들 마다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보통은 사무실이라고 얘기하는데
저희는 도움방, 강당 이라면 모여서 놀아요 방
엄마랑 아기랑 방, 별나라방 뭔가 호칭들도 방의 이름도 아이들이
직접정하고, 아이들이 더 친숙하게 느낄수 있는 이렇게 구성을 했죠.

작은 미술관 SK 5” 책뿐 아니라 활동 프로그램도
다양 합니다.

자막/ 어른과 아이가 함께 하는 다양한 체험

sov/ 재미있어요.

sov/ 조금 손이 아프기도 한데 재미있어요.

sov/ 원래 소근육 발달에 관심이 있었는데, (딸이랑)같이 (종이를)오리면서
얘기하면서, 얘기도 더 많이 하게 되고 되게 좋은 아이디어 테마 같아요.

아이들 오리는 모습 5” 이런 것들이 순천기적의도서관을
찾는 이유입니다.

#외경 - 책돌이 도서관 순천을 지나 이번에는 광주를 찾아왔습니다.
자막/ 책돌이 도서관

비오는 외경
자막/ 2018년 10월 26일 / D-1

도서관 SK 20” 개관한지 딱~ 10년째인 책돌이
도서관.

(살짝 포즈)
 지역사회와 섬터이자 놀이터역할을
 하고 있다는데요~
 책 안에서 자유롭게 숨을 쉬고
 그야말로 책과 '놀수' 있는
 도서관으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INT/
 일단 이 지역에서 홍보를 할때는 '저희는 책 읽어주는 도서관이에요'
 '저희는 시끄러운 도서관이에요' '편안한 공간이다' 라는걸
 말씀을 드리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공간이다' 라는걸 얘기하고 싶어서
 책임어주는 도서관이라고 (소개) 합니다.

한창 바쁜 도서관 (어수선한거 좀 보다가)
 그런데 오늘 도서관이 좀
 어수선 합니다.

Q. 뭘 준비하고 계신거예요?
 내일 광장도서관 책문화 잔치를 하는데, 저희가 펼칠 전시대량
 준비물을 미리 실어두려고요

바쁘게 준비하는 도서관 사람들 (보자기 싸는건 보고)
 온전히 책 하나로만 열리는
 특별한 축제에 참가하게 된
 책돌이 도서관.

짐 옮기면 10주년 기념을 겸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한 만큼
 축제 준비에~ 정성을 쏟습니다.

짐실으면 그런데~비가 걱정이네요.

비 오는 그림 좀 보고
 # 다음날. 드디어 축제날 아침.
 다행히 비는 멈췄네요.

자막/ 2018년10월27일.

광장 풍경 SK

책돌이 도서관에서는
 평소 도서관을 이용하는 학생들부터
 활동가들 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피리 소리 불고)

아이들 출발

자발적으로 만들어가는 축제답게
 아이들도 기발한 아이디어로
 홍보에 나섰습니다.

책 읽는 아이들

(보고)
 축제 하루 전날까지
 열심히 준비하던 책돌이 도서관은
 어떤 활동을 펼치고 있을까요?

INT/ OO -책돌이 도서관
 책돌이 도서관은 광장도서관으로 나와서 2018년 신간목록을
 펼쳐주는 부스는 2개 만들고요, 잠시 쉬는 동안 동화낭독도 하고
 책도 보고 독서 환경개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동화 읽어주고

책돌이 도서관활동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곳은
 책 낭독부입니다.
 (읽어주는 모습 -1S은 보고)

듣는아이들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듣기도 느끼기도 한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 준비한
 프로그램인데요,
 역시 아이들의 호응도가
 가장 좋네요.

INT/
 좋은 책도 추천해 주고, 다 같이 어울려서 책도 읽어 주고
 보드 게임도 하고 영화도 상영도 하고 (하니까 좋아요)

INT/

체험을 하러 오시는 분들에게는 나중에 만들기 같은 걸 통해서
'나도 만들어 볼수 있다' 라는 걸 알려주는 것 같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은 사람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이해를 하거나
새로운 것을 알아낼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외경 - 20년의 시간동안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
긍정적인 변화의 바탕에는
도전과 끊임없는 반문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자막/ 작은도서관 심포지움

사람들 모습 - 10” 지금우리의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무엇을 위해 나아가야
하는가?

INT/

작은도서관에서 벌어지는 여러가지 활동들이 많지만 책을 읽는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해서 다른 도서관에서 하고 있는 다양한 책읽기 사례를 소개하고
같이 토론해보고, 그래서 작은 도서관에서 책읽기가 좀 더 확산 되는 것을
기대하고 진행하는 심포지움 입니다.

서로 발표하는 것 (그냥 듣고)

사람들 서로 논의하고 9” 하나의 방향성은 가지고가되,
끊임없이 토론하고 반문해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 그것이 바로
작은도서관의 힘입니다.

INT/

김해에서 하면 사람들이 많이 올까? 걱정을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좌석이 꽉 차고, 심지어는 계단에 앉아 계신 분들도
있어서 그게 제일 좋았던것 같고요. 작은도서관 식구들을 대단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 기회였습니다.

자막/ 20년 후의 작은 도서관은 어떤 모습일까요?

자막/ 작은 도서관은 여전히 존재할까요?

자막/ 작은 도서관의 미래에 대한 이야기

외경 (보고)
내부 SK 아기자기한 외관에
놀이터와 연결돼 있는 것이
눈에 띄는
흥부네 그림책도서관입니다.

INT/

그림책 동아리, 그림책 꽃밭이 만든 그림책 전문 작은 도서관
입니다. 그래서 아주 어린 아기들 부터 나이드신 어르신들까지 와서
저희가 그림책을 3천권 넘게 가지고 있는데, 다양한 그림책을
마음껏 즐기실수 있는 동네의 작은 도서관 입니다.

다양한 그림책 9” 생긴 지 이제 3년이 넘은 곳으로
그림책을 전문적으로 볼 수 있는
특성화 도서관입니다.

INT/

저희는 그림책으로 여러사람들 에게 권하고, 그림책을 함께
읽고 이야기 나누는 그런 공간이고요. 작은 도서관이지만 1명이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8명의 운영위원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책 읽는 (현장음들어요)

아줌마들 열심히 듣는 모습 10” 그림책은 아이들만 본다는 편견을
깨고, 어른들 중심의 모임이
활발합니다.

어른들을 이곳으로 끌어들이
도서관의 힘은 무엇일까요?

INT/
동네 산책을 하다가 바로 앞에 놀이터가 있잖아요.
조리원 동기중에 한명이 놀이터를 발견했다고 해서 와봤는데..
여기서 이런 수업을 하더라구요.

INT/
다양하게 책을 읽을 수가 있고, 아이 혼자 있는게 아니라
다른 아이들과 같이 읽으니까 그게 좋은 점이더라구요.

INT/
아이를 데리고 와가지고 그림책을 보여주기 시작하다가
엄마들끼리 모임을하기 시작하는거예요.
그래서 저도 ‘아 저 모임에 들어서 그림책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 모임을 시작하게 됐죠.

팬 - 다른 모임 소개

아이 때문에 찾아온 곳이지만
결국 어른들의 또 다른 배움과
소통의 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노래 물려도 다 읽어주세요)
(노래 듣고)

수업듣는 사람들 SK

누구나 쉽게 접할수 있는
‘그림책’ 이라는 아이템으로
도서관의 문턱을 낮춘 것!
이것이 흥부네 그림책도서관의
특징입니다.

INT/
굉장히 다양한 사람들이 사는 이 마을에 그림책을 가지고
아름다운 것들을 전하고요. 아름다운 마음을 서로 나눌수 있는
저희가 가꾸는 이 공간처럼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 도서관운영자들만 좋은 도서관이 아니라

이용자들도 이곳에서 뭔가 위로를 얻어가는 그런 도서관이
되기를 바라고, 그런 도서관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천일 어린이 도서관 외경

서울시 강동구에 자리한
천일 어린이 도서관.
이곳은 열린사회시민연대에서
위탁으로 운영되는 구립작은도서관
입니다.

웃는 책 컬렉션 - 19”
- 틈다운되면

(현판 보고)
일산에서 운영되던 웃는책 도서관이
문을 닫으며, 그 정신을 이어받아
강동구에서 운영하고 있는데요.
특히 북큐레이션이라는 장르를
새롭게 만들어 낸 곳이기도 합니다.

INT/ (책) 전시를 하는데, 전시가 그냥 구경거리가 아니라
전시하는 책을 같이 읽을 수 있는 활동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시작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책을 전시를 해놓으니까
의외로 사람들이 익숙해져 가면서 (책을) 꺼내 보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우리가 생각보다 자연스럽게 책을 권하는 것에 좀 소홀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이후로 점점 도서관 구석구석에 읽었으면 하는 책들을 두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하나 조
금씩 늘어났던 것 같아요.

사람들 책 보는 모습 20”

책을 억지로 권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도서관 안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볼 수 있도록 만든 것이
바로 북 큐레이션입니다.
북큐레이션이 도서관을 찾는 이들을
위한 활동이라면,
‘야외에서 열리는 작은 공원도서관’
은 도서관에 오는게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서비스입니다.

SOV/ (도서관)안에서 (책을) 이용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밖에서 노는 친구들 놀다가, 잠시 쉴때 같이 그림책 보면서
쉬었다가 놀다가 하라고 (준비하는거예요)

의자 - 세상에서 가장 작은 공원 도서관

책읽어주는 것 15”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책을
만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서관 밖으로 나선 겁니다.

- 파란옷 입은애 얘기하고 + 선생님 얘기하고

누구나 책을 읽을 수 있고,
책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INT/ 눈으로 보는 것 보다 선생님의 목소리로 들으면 생각이
더 많아지고 깊어지는 것 같아요.

INT/ 제가 (책을) 보는 것보다 선생님이 읽어주시면 더 몰입이 되는 것 같아요.

INT/ 책이 있는 도서관 실내를 벗어나서 밖으로 책을 가지고
나왔다는 게 중요한 것 같고요.

요즘 아이들이 책을 접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직접 보여주는거죠
이렇게 재미있는 세상도 있다고요

시계
선생님들 일하고

SOV/ 오늘이 몸놀이 하는 날인가요?

SOV/ 오늘 몸놀이 하죠 5시에

오늘은 뭐 가지고 하죠?

오늘은 나는 괴물이다 그 그림책가지고 해요.

사람들 들어오고 (인사 살리고)

‘몸놀이’ 이는
천일어린이웃는도서관 만의

특별한 프로그램인데요.
아이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고
성장을 위해서~ 외부의 전문가까지
초빙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람들 이야기 하고 - 몸놀이 소개

그런데~ 도대체 몸 놀이가 뭔가요?

INT/ Q. 몸놀이가 뭐예요?

우리가 몸으로 어떤 동작을 만드는것을 보통 무용이라고
이해하고 있잖아요. 어떤 완성도가 있는 동작을 완성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 몸으로 느끼는 감각을 표현하고 충분히 느끼고
그것을 사람들하고 함께 하는 그런 활동이 무용보다는 조금
폭 넓은 개념인것 같아요 저희끼리는 몸놀이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사람들들어오고 20” - 몸놀이 소개

온몸으로 책을 표현해 본다는
기발한 상상예~ 아이들의 반응은
뜨겁습니다.
(중간 그림은 좀 보고요)

-> 몸놀이 하는 과정 좀 보고

정말 책이 ‘놀이’로 다가올 것
같은데요.

INT/

여기가 작은 도서관인데, 도서관은 책을 아이들하고 부모님하고
보러 많이 오는데. 저는 그림책동화를 보면서 아이들이 상상하고
있는 것들을 실제 몸의 움직임까지 확장해 보면 아이들이(그림책을)
읽었던 느낌을 조금 더 생동감 있게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시작을 했는데요. 저희들은 연극을 할때 아이들은 책 안에서 움직임이
가능한 부분을 생각하고, 그것을 이끌어 낼수 있는 다양한 재료와 함께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상상을 움직임으로 동작으로 발산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부분을 조금 더 연구해 봤습니다.

아이들 놀이 하고 20”

공립어린이도서관이지만

주어진 프로그램에만 매이지 않고
 다양한 시도를 하고 있는
 천일웃는어린이도서관.
 ‘몸놀이’ 역시 그런 고민의
 연장선상에서~ 개발된 수업이라고
 합니다.

INT/ 공립이라고 해서 주어진 것들을 그대로 따르거나
 ‘여기 책이 있으니 빌려주세요’ ‘프로그램을 기획했으니 해보세요’
 뭔가 시민들이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것 보다는
 스스로의 힘으로 동아리라던지 혹은 아이들에게 책 읽어주기라던지
 아니면 엄마들의 책 모임이라던지 이런 것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인식하고 함께 문화나 공동체의 정신을 통해서 세워나가는
 함께 성장하고 함께 뭔가를 만들어 나가는 풍토를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고요. 운영방식도 되도록이면 시민들의 책 읽기를 돕는
 그런 부분에 역점을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외경 -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

자막/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

아이들 올라가고 9”

늘푸른 어린이 도서관 역시
 적극적인 프로그램 개발로 변화를
 꿈꾸는 도서관 중에 하납니다.

특히 이곳에서는 청소년의 성장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남자 아이 와서 이름 체크하고

작은 도서관 꿈꾸다

(보고)
 ‘작은도서관 꿈꾸다’ 라는
 프로젝트는
 진로를 고민하는 청소년들을 위해
 마련한 특별한 활동입니다.

강사 등장 (인사 - 보고)

자막/ 오늘의 강사- 뮤지컬 배우 박요한

SOV/ 도서관 오랜만에 오셨죠?
 작은 공간에 꾸며져 있는 것 처음 봐서 신기하네요.

오늘 친구들이 강사님 오신다고 해서 기대하고 있어요.

오늘 어떤 이야기 해 주실 건가요?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에 대해서 이야기 하고
 친구들이 스스로 ‘나’ 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을 놀이식으로 가져볼려고
 놀이를 준비했습니다.

장비 준비

매달 한번씩 지역사회나 도서관과
 관련된 이들을 초대해 특별한
 강연을 열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뮤지컬배우의 강연입니다.

책으로만 배우는 것이 아니라
 그런 책을 통해 성장한 사람들의
 진짜 이야기도 들려주는 것입니다.

sov 시를 짓는건데 자기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어서 뜻 깊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한 곳만 바라본지 오래 됐거든요. 초등학교때부터 00만봤는데.
 여러 직종을 보면서 여러개 다른 직종도 생각해 볼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된것 같아요.

int/

저는 그냥 나를 좀 돌아봤으면 싶었어요. 저도 옛날을 생각해 보면 중학교 때도
 되게 힘들었거든요 힘들었고, 그때만의 고민들이 있고, 아픔들이 있고
 그때만의 즐거움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아이들이 아픔과 즐거움을 제가 물어보지 않아도 입 밖으
 로 얘기를 꺼낸다고 해결되지 않잖아요. 그 속에서 아이들이 스스로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됐
 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강의했습니다.

도서관 sk - 모여서 이야기 하는 모습 20“

그냥 엄마였다. 품앗이를 하다보니 어느새 선생님이 되고, 내 아이를 위해 시작한 활동이 지역의 아이들을 위한 활동으로 이어지는.. 그것이 지금의 작은 도서관을 이루고 있는 힘의 원천이자 사람입니다.
도서관은 그렇게 또 다른 사람들을 만들며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INT/ 박소희

(작은도서관 운영시절이)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역할이었다고 생각하고요.
작은 도서관 왜 운영해? 그렇게 힘들고 하면서도 왜 운영해 하면 실은 책으로 만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조금 달랐던 것 같아요.
경쟁보다 나눌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런 사람들을 이 공간 아니었으면 만날수 있었을까?
이것에 대한 확신이 계속적으로 (작은도서관 활동을) 이어오게 하는 것 같고요.

INT/

도서관의 공간적인 의미보다는 커뮤니티 같은 그런 의미
우리가 지식정보를 습득하는 방식이 달라졌고
그렇다면 그런 달라진 정보를 소통하는 공간으로서의
의미들을 도서관이 가져야 될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작은도서관이 민간에서 시작한 운동이기 때문에
민간의 역할이 컸다고 생각해요. 시대가 공공과 복지 영역이
확대 되어 가는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민간의 역할보다
공적복지 영역으로 도서관이 더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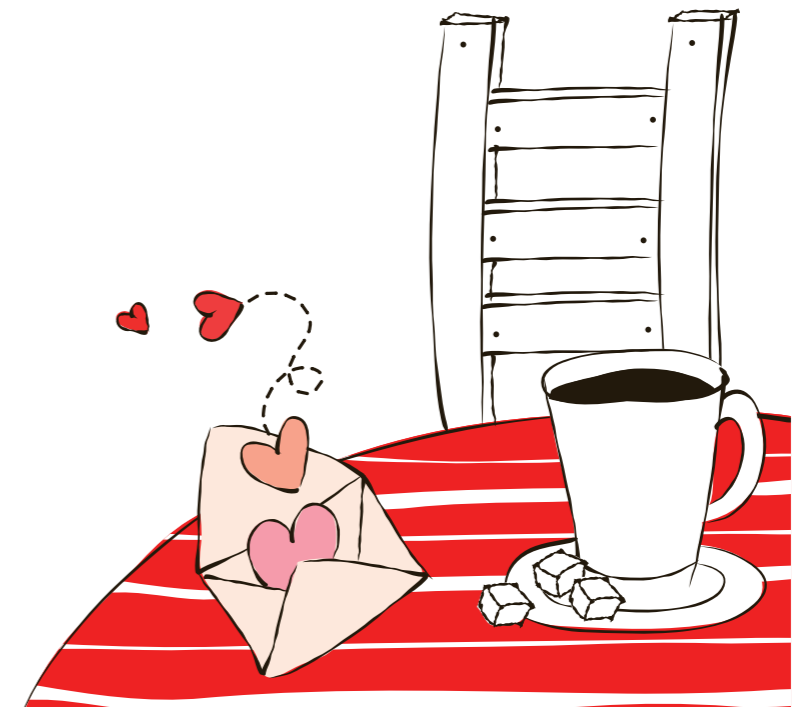
에필로그 20"

지난 20년의 세월을 바탕으로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는 지금.
작은 도서관이 어떤 모습으로
발전해야 하는 걸까요?
분명한 것은 오늘도 책을 꿈꾸고,

작은 도서관을 꿈꾸고
사람을 꿈꾸는 이들을 위해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람들 인터뷰

- 작은 활동도 하고 공부도 하는
- 힘이 되는 친구같은 존재
- 누구나 올수 있고 케어 받을수 있는 곳
- 누구나 신나게 놀다가 쉬다가 책임다가 갈수 있는 공간
- 주민들의 쉼터가 되기도, 책을 읽어주는 사람이 되기도 하는 굉장한 관계를 가져가는 것





추대함입니다

역대 상임이사님들을 초대합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낙엽이 쌓인 길을 걸으며 우리가 걸어온 길을 생각합니다.

한 발 한 발 가다보니 어느새 20년.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으로 함께 한 우리의 나날들입니다.
그 길에 있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온 길, 우리가 걸어갈 길을 그려보는
가을밤으로
당신을 초대합니다.

누구보다 애는 당신을 기다리겠습니다.

1 만나는 날 2018년 11월 11일(일) 19시
1 모이는 곳 웃으러 (서울 마포구 월드컵로14길 19)
1 만나는 사람 누가 뭐래도 누구보다 애는 여러분
1 초대하는 사람 17개 어린이와 작은도서관협의회



2019 작은도서관아카이빙 전시 '작은도서관-있다'

2018년 작은도서관 역사찾기2에 이은 2019년 첫 아카이빙 사업은 전시였습니다. 먼저 지난 20여 년간 축적되어온 협회의 자료들을 추리고, 회원도서관에도 전시 소식을 알리고 기획의도를 공유했습니다. 그러자, 전국의 회원도서관에서 귀한 자료와 물품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것 하나 놓칠 수 없는 역사였습니다.

1월 22일부터 2월 10일까지 서울도서관 기획전시실에서 열린 '작은도서관-있다' 전시에 대한 관심은 뜨거웠습니다. 과연 작은도서관 역사에 관심을 가져주실까 하는 우려는 괜한 걱정이었습니니다.

평일 평균 30명, 주말 80명의 관람객들이 전시장을 찾아주셔서 누적 관람인원은 약 800여 명에 이르렀습니다. 작은도서관이 걸어온 길에 뜨거운 박수와 응원을 보내 주셨습니다. 무엇보다 감사한 것은 회원도서관들의 관심과 응원이었습니다.

2019 작은도서관 아카이빙 전시는 '작은도서관-있다'입니다. 각기 다른 것들이 이어진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확인했습니다. 그 매개 역할을 누구보다 멋지게 해온 회원 도서관- 전국의 작은도서관들에게 박수를 보냅니다.

작은도서관의 역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